

번역서의 온라인 결텍스트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통시적 연구: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송연석
(한국외대)

1. 서론

번역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익숙하고 당연시되어 온 명제다. 이는 번역의 결과물 및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게 마련인 만큼 단기간을 포착하는 공시적 연구보다는 장시간의 점진적 변화를 조감하게 해주는 통시적 연구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까지 개인 차원의 연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출판번역의 경우 도서 한 권 분석하기조차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텍스트(paratexts)¹⁾ 연구는 이런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결텍스트는 독자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갈지 돌아설지 좌우하는 ‘문턱(threshold)’(Genette 1997: 1-2)에 해당하는 만큼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출판

* 이 연구는 202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제목, 저자서문, 헌사, 서평, 관련 인터뷰 등 텍스트를 보충하는 여러 요소들

사로서는 그 문턱에서 독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본문 텍스트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투입해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번역 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작품에 대한 재번역본 및 재출간본의 결텍스트들을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연계해 고찰해 보면 사회문화적 상황이 번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번역된 작품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정의되는지 번역사회학적 관점의 수용 연구”가 가능해진다(박선희 2015: 30).

그런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출판번역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전자책 발행 및 기존 종이책의 전자책 재출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서 구매 및 소비 양상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오프라인 서점은 매출이 갈수록 줄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에 역전당했고(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오프라인 매출 3위였던 반디앤루니스의 2021년 부도를 비롯해 최근 오프라인 중대형 서점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동아일보 2023.7.26.).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독서자의 연 평균 독서량이 전자책 8.1권, 종이책 6.6권으로 전자책 이용이 종이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전자책을 포함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출판번역 환경을 반영한 통시적 관점의 결텍스트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 번역서 결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통시적 연구는 모두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민서, 김순영 2019; 김소정 2010; 김순미 2013; 박운우, 이상빈 2023; 이지민, 한륜혜 2022; 지영래, 박선희 2010) 주로 분석 대상 기간 내 발행된 소수의 번역본끼리 비교하거나 초판 발행 이후 수십년에 걸친 기간 중 특정 기준에 맞는 소수 번역본들을 선정해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미고전소설 ‘오만과 편견’ 번역서의 온라인 결텍스트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문화적 변화가 결텍스트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번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오만과 편견’과 같은 고전소설을 선정한 이유는 최대한 오랜 시간에 걸쳐 재번역 및 재출간된 작품일수록 점진적 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만과 편견’은 영미고전소설 중에서도 매년 꾸준히 재번역 및 재출간되고 영화화되기도 한 대중성 높은 작품으로, 영미문학연구회의 2003년 ‘영미문학 고전번역 평가사업’에서도 샘플평가 대상으로 언론에 결과가 공개됐을 정도로

고전소설 중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곁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려는 목적의 전수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으며, 그 방법론으로서 기존의 종이책 기반이 아닌 온라인 기반의 곁텍스트 개념을 새롭게 모색하는 탐색적(explorative) 연구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곁텍스트 개념과 번역서의 곁텍스트

곁텍스트는 프랑스 문학비평가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가 1987년 저서 ‘Seuils(문턱)’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1997년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이란 제목의 영어 번역서로 출간되어 이후 많은 연구에서 이 번역본을 인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곁텍스트는 본문(텍스트)이 더 잘 수용되고 소비되도록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곁텍스트 없는 본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Genette 1997: 1-3). 그 점에서 출판사가 생산하는 상품인 번역서에서 곁텍스트는 본문 못지않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주네트는 곁텍스트의 특징을 다섯 가지, 즉 공간(본문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가), 시간(본문을 기준으로 언제 작성됐는가), 본성(텍스트, 삽화 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화용(발신자와 수신자는 어떤 특징을 가졌고 메시지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기능(어떤 목적을 갖는가)으로 구분하는데, 공간적 특징을 기준으로 본문과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저자명, 책 제목, 서문, 헌사, 장 제목, 주석 등은 주변텍스트에 해당되고 그 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언론 인터뷰, 서한, 일지, 기타 비공개 교신자료는 바깥텍스트로 분류된다(ibid. 4-15). 곁텍스트는 시대, 문화, 장르, 저자, 작품, 판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압력 요소가 작용한다(ibid. 3). 따라서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본문에 비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곁텍스트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게 돕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런데 주네트의 결텍스트 개념은 번역물이 아닌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번역문에 적용할 경우 분류가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원문의 결텍스트인 제목이나 저자명, 작품 해설 등도 번역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원문의 결텍스트가 번역문에서 본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든지, 번역문이 원문의 후속 판본인 바깥텍스트로 취급되는 문제 등이다. 이는 번역문을 원문에 종속된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을 ‘다시쓰기’라는 창의적 과정으로 여기는 번역학적 관점과 충돌한다(Bachelor 2018: 22). 번역문의 경우 특히 주변텍스트의 개념과 분류가 문제가 되는데 번역문 결텍스트의 분류와 위상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영래와 박선희(2010)는 화용적 관점에서 결텍스트 작성자의 책임 소재를 기준으로 ‘편집부의 주변텍스트’ ‘저자의 서문’과 더불어 ‘번역자의 주변텍스트’, ‘번역자의 서문’ 등의 용어를 보충할 것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분류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박선희(2015: 24-27)는 화용적 관점에서 발신자를 기준으로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를 ‘저자 주변텍스트’, ‘편집자 주변텍스트’, ‘번역자 주변텍스트’, ‘제삼자 주변텍스트’로 세분화했다. 이지민과 한륜혜(2022)는 편집자 개입 정도에 따라 발신자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번역된 본문(텍스트)’, ‘번역된 결텍스트(번역된 주변텍스트와 번역된 바깥텍스트)’, ‘번역본 결텍스트(번역본 주변텍스트와 번역본 바깥텍스트)’ 세 갈래로 분류한다.

2.2 온라인 시대의 결텍스트

그런데 온라인에서 번역서를 구매하고 디지털로도 소비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사실 원작의 스토리, 즉 본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밀한 것일 수 있다. 종이책에서도 모호했던 텍스트 안팎의 경계가 디지털 문화에서는 훨씬 더 모호해지기 때문이다(Doherty 2014). 바깥텍스트가 ‘후(後)텍스트’로도 불리듯이(유한내 2013) 발행 ‘후’에 신문 등에 게재됐어야 할 출판사 리뷰나 책 소개가 이제는 미리보기로 제시되는 본문과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고²⁾, 예비독자들은 책을 읽기도 전에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독자 리뷰를 통해 선행적인 정보를 얻는다. 텍스트

2) 이 때문에 이상빈(2022)은 ‘후텍스트’란 용어를 비판한 바 있다.

는 갈수록 디지털화되고 있고 아예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Smyth 2014). 이처럼 시공간과 형태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온라인에서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온라인 시대 곁텍스트를 새롭게 구분할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뚜렷하게 정립된 분류법은 없다(Doherty 2014; Birke and Chris 2013; Leavenworth 2015; Pesce and Noto 2016; Stewart 2010; van Dijk 2014).

모든 것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어쩌면 전통적인 종이책보다 곁텍스트 정보의 보고이자 소비자를 ‘문턱’에서 잡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했을 온라인 서점이 더 현실적인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의 각 도서상품 페이지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상단에 표지 이미지 및 미리보기, 판형, 제목,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발행일, 가격, 배송정보가 있고, 하단은 목차(역자후기 유무 포함), 책 소개/출판사 리뷰, 저자 및 역자 소개, 기본정보(쪽수, 크기, ISBN 등), 독자 리뷰, 반품교환정보로 구성된다. 종이책에서 뒷면에 수록되던 가격과 배송정보, 반품교환정보가 상단에, 목차와 저자 및 역자 소개는 하단에 배치된 것은 작품 이해보다는 구매와 관련된 중요도 순으로 곁텍스트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네트의 곁텍스트 분류를 적용해 보면 표지 이미지, 제목, 역자명, 출판사명, 발행일, 목차, 저자 및 역자소개, 가격/배송/반품교환 정보는 주변텍스트에 해당되고 책 소개/출판사 리뷰와 독자 리뷰는 바깥텍스트에 해당될 것이다. 판형, 문학전집 같은 시리즈 여부도 주변텍스트로 분류되는데(Genette 1997: 17-18) 휴대하기 쉽고 저렴해 인기를 누렸던 ‘문고판’의 기능을 지금은 전자책이 담당하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사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대에게는 이것이 구매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책이라는 판형 또한 중요한 주변텍스트 요소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는 공통의 목적 아래 같은 시공간에 혼재하고 있어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 즉 온라인 시대 곁텍스트는 주변과 바깥을 구분하기보다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웹페이지의 다중모드적(multimodal) 특성을 고려해 기호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시각 이미지와 문자(문자로 구성된 곁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2.3 표지 이미지와 시각문법

결텍스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표지다. 표지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독자가 도서를 구입할 때도 표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임경은, 정진우 2020). 특히 문학도서를 관심 있게 읽는 여성은 표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표지 디자인만을 보고 구매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표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남미현, 백진경 2004). 이 때문에 번역서 표지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할 정도로 표지는 결텍스트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마승혜, 김순영 2022; 박윤우, 이상빈 2023; 선영화 2017; 이강선 2019; 이상빈 2021; 이선우 2023; 최희경 2011).

표지는 제목이나 역자명, 홍보 문구 같은 언어적 기호뿐 아니라 삽화나 사진 같은 비언어적 기호가 사용되는 다중모드 텍스트로, 이 기호들과 사회문화적 맥락 간에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기호학적 접근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각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 (Kress and van Leeuwen 1996/2006/2021)이다.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서 영향을 받은 이 이론은 시각 기호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는 틀로, 다중모드 텍스트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할리데이가 분류한 언어의 세 가지 메타기능, 즉 관념적(ide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메타기능(metafunction)이 시각문법에서는 각각 서사구조/개념구조, 시선(gaze)/각도(angle)/사회적 거리, 정보가치/부각(salience: 배경화, 전경화, 크기 등)/틀(framing)을 통해 구현되는데, 예컨대 표지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인 ‘참여자(participant)’의 시선이 독자를 응시하면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며 가상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demand)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미소를 지으며 응시한다면 친밀감을, 차갑게 응시한다면 경외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 참여자는 정보나 관찰 대상으로서 마치 전시된 표본처럼 독자에게 제공(offer)되는 효과를 낸다(Kress and van Leeuwen 2021: 116-118). 또한 참여자가 독자를

내려다보는 각도(low angle)일 경우 참여자에게 더 많은 권력(power)이, 반대로 독자를 올려다보는 각도(high angle)면 독자에게 더 많은 권력이 부여된다(ibid. 133-140). 따라서 표지 이미지의 독자-참여자 간 관계를 통시적으로 관찰하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각 문법은 영어권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미디어도 시각디자인, 영상이론 등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은 애초에 서구에서 도입한 것인 만큼(박영원 역 2006; 배상준 2016; 유재설, 차태호 2005) 번역서 표지 이미지 분석에 이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작인 『Pride and Prejudice』의 다양한 판형의 한국어 번역본 결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서점에 제시된 결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해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 대신 이미지(사진이나 삽화)로 구성된 결텍스트와 문자로 구성된 결텍스트로 나누고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통시적 연구의 한계와 범위를 고려해 결텍스트의 기능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인 표지의 이미지 및 문구, 역자명 표기 및 소개 여부³⁾, 번역서 홍보/판매를 위한 온라인 출판사 리뷰/책 소개로 분석 항목을 한정했다. 표지는 독자에게 번역서의 첫인상에 해당하는 만큼 출판사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재번역 및 재출간한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역자명 표기 및 역자 소개 여부는 번역자 가시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판사 리뷰/책 소개는 번역서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번역/재출간의 목적이나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초판본이 발행된 195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된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되 오디오북은 시각기호에서 청각기호로 변환

3) 역자후기 유무는 종이책과 대조해본 결과, 간혹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정확하다고 보고 제외했다.

된 만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보고 제외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따라 성인 대상 도서는 물론 초등학교학년 및 청소년 대상 도서도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처음부터 원작을 바탕으로 개작한 작품을 ST로 사용한 경우는 저자도 제인 오스틴이 아니므로 아예 다른 작품으로 간주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고, 결텍스트 내용이 동일하고 판형만 양장본, 전자책 등으로 바꾸어 재발행된 경우는 중복으로 간주해 제외하되 번역자와 출판사가 동일해도 표지가 바뀐 버전이 발행된 경우는 그 의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어린이용으로 개작된 만화책은 큰 줄거리 외에는 사실상 번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수집은 매출액 기준(대한출판문화협회 2022) 국내 1, 2위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사이트를 이용했다. 누락된 번역본이 없도록 두 사이트를 대조하고 필요 시 도서관 대출, 중고도서 구매, 구글 검색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총 124종의 번역본이 존재함을 확인했다⁴⁾. 결텍스트 중에서 표지 이미지와 출판사 서평 등의 텍스트 정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데이터의 균질성을 위해 제외해 최종적으로는 1988년 8월본부터 2022년 3월 발행본 총 96종을 분석했다(부록 참조). 다만 1980년대 이전의 번역서 표지는 당시 대다수 도서들이 그랬듯 A6 크기의 문고판 혹은 세계문학전집의 일부로 출판되었고 표지 디자인 등 시각적 요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제목과 역자명, 출판사명, 시리즈명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 별다른 시각적 요소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6종 중 전자책으로만 발행된 번역서는 7종이다.

먼저 엑셀을 이용해 데이터 수집과 기록을 병행해 번역본별로 기본적인 서지정보(발행일, 번역자명, 출판사명, 전자책 여부)와 함께 번역자 가시성 요소(역자명, 역자소개), 표지 이미지의 시각문법적 특징(인물의 시선과 각도 등), 표지의 문구, 출판사 리뷰/책 소개를 복사해 붙인 뒤 결텍스트에 나타난 번역본별 강조점들 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범주화해 색깔(예: 핑크색은 로맨스, 파란색은 사회비판, 녹색은 가독성 규범 등)로 표시했다(그림 1). 시각

4)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시스템에서는 총 181종이 검색되었으나 1989년부터만 등록이 되어 있고 원본 자체가 다르거나 판형만 전자책으로 바뀐 경우, 동일 판본을 여러 권으로 나누어 등록한 경우, 중복 등록 오류 등 문제가 많았고 오히려 실제 독자가 가장 이용하는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더 많은 정보가 있었다.

적 데이터가 많아 모든 단계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어떤 판본의 ST를 참고했는지 명시한 번역서가 별로 없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에서 모든 판본을 검색해 283종의 표지를 확인하고 번역서 표지와 대조했으나 여전히 번역서 표지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ST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글 이미지 검색과 제인 오스틴 관련 사이트 검색 등으로 오래된 판본의 표지도 찾아 대조했다. 이 작업에서도 원본을 찾지 못한 경우 국내 출판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림 1〉 데이터 분석용 엑셀표 예시

연번	발행일	역자	e북	출판사	역자명(차스?)	양표지	뒷표지	이미지 특징	출판사 서명	로맨스 사회비판 균형 기타
42	2009.10	김정미		황관출판사 코리야	0	1		19세기유화 화가자, 흰 옷 시선 측면 회피, 김은호 하방회피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 18세기 후반 영국 중류계급의 결혼준비도를 다루는 작품으로, 주인공의 오만과 편견으로 생긴 서로에 대한 오해를 극복 하고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는 편견의 대표 지로 살아간다는 점이 결혼과 사랑에 의해서 자신의 편견을 바로 잡게 된다. 미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친구 샐리와 별반 조건이 다르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현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분방하거나 강성을 화성하지 않고도 사랑과 행복, 재산과 사랑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오만과 편견』은 영국의 신인쇄 영자본 19세기에 쓴 작품인데도 그 시대의 경쾌하고 진보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당시의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지방 지주계급들의 허영과 사치, 무능, 부도덕성을 세밀하게 해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1
43	2009.1	김지연		한지연	1		브라운소 의 일기의 형 식, 오스틴 여 1 인물이 일부 는 전체의 로 맨스의 최상 인액본!	드레스 여자 의 일기 형식 중시 삽화	유아적이고 섬세한 원본 일러스트와 함께 읽는 그의 『오만, 그녀의 편견』// 영어로 된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현대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제2차 창작물의 원천인 『오만과 편견』, 이 작품은 신혼과 계급, 명예와 부, 성취에 따른 고요한 승리의 열정성을 제인 오스틴 특유의 세련된 감각력과 일정한 정제, 단정성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으로 그려낸 로맨스 소설의 고전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0여 년간 세월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호매율과 열광적인 사랑을 지니며, 많은 독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호소할 만한 연애 이야기, 현대적으로 말하면 로맨스 소설이다. 아름다운 18세기 영국 전경을 배경으로, 인생에 외면치 않는 영아적이고 발랄한 여자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자가 사랑으로 이해 서로 배고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 후 완벽한 행복을 얻고 싶어 한다. 또한 19세기 당시소설에서 후존슨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유머러스한 오리지널 삽화가 함께 실려 있어 작품의 맛을 더해주고 있다.	1

4. 분석 결과

4.1 이미지로 구성된 곁텍스트

4.1.1 표지 이미지의 페미니즘

표지 이미지 속 여성이 독자를 응시하는 번역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금슬 역)으로 그전까지는 19세기 배경의 등장인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 혹은 남녀의 모습이나 풍경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때 여성의 시선은 독자를 향하지 않고 있고 아예 뒷모습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06년본 표지의 여성은 의복이나 머리 스타일로 보아 현대 여성은 아니지만 시선은 정확히 독자를 향하고 있으며 약간 높은 각도에서 독자를 응시하고 있다(그림 2).

이와 비교해 2000년 번역본(정홍택 역)에서는 현대 여성의 느낌을 주면서도 독자보다 낮은 각도에 위치하고 시선도 독자를 피해 다른 쪽을 응시하는 등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피하고 독자보다 낮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지에 문자로 제공된 결텍스트는 본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를 유혹할 만큼 예쁘진 않은데. 더군다나 다른 남자들에게 딱지 맞은 여자의 체면을 채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네. 자네나 어서 파트너에게 돌아가 그녀의 미소를 즐기게.”란 문구에서도 여성이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로 묘사되고 있다. 2006년본과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유사한 느낌의 다른 두 번역서(김의경 역, 서민아 역) 표지에서도 여성은 독자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좌로부터) 금실 역 2006; 정홍택 역 2000; 김의경 역 2006; 서민아 역 2007



〈그림 3〉 김유미 역 2013; 김유경 역 2016; 김설자 역 2017; 류경희 역 2018



여성이 등장하는 표지는 총 66개였는데, 그중 대부분인 81.3%(53개)에서 여성은 독자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허공이나 다른 쪽을 바라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다소곳하게 아래를 내려보고 있었다. 독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표지(그림 3)는 19.7%(13개)로, 2009년, 2010년 하나씩 간헐적으로 등장하다가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7~2019년 정점을 찍었다.

특히 <그림 4>의 2018년본은 3권으로 나뉘어 발행됐는데 모두 여성이 독자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각도에서 독자를 응시하고 있다. 현대적인 복장으로 환하게 웃으며 독자를 응시함으로써 친밀감을 유도하는 한편, 권력이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단의 “제인 오스틴, ‘자유롭고 활발한’ 엘리자베스로 남성 중심적인 영국 사회를 ‘당당하게’ 비판하다!”라는 문구는 앞서 그림 2의 2007년본(서민아 역)의 ‘오해와 갈등으로 엮어낸 최고의 로맨스’나 그림 5의 2006년본(김갑수 역)에 수록된 ‘사랑과 결혼에 관한 명쾌한 연애지침서’와 대조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그림 4> 안영준 역 2018



<그림 5> 김갑수 역 2006, 이수원 역 1993; 더페이지 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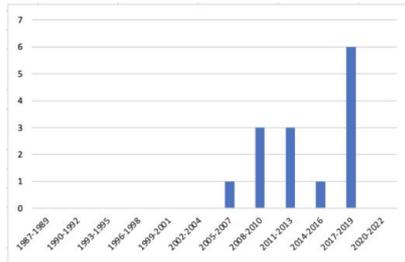
또한 <그림 5>의 1993년본(이수원 역)의 여성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짝 들이대는 남성의 모습이나 밝지 않은 표정으로 저항 없이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볼 때 작품을 설명하는 삽화로 부적절해 보이며 독자와는 물론 삽화 속 다른 참여자들 과도 권력관계에서 약자로 제시되어 있어 2018년 번역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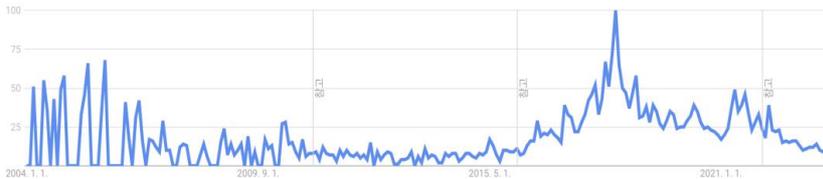
여성의 ‘자유,’ ‘해방,’ ‘당당함’을 내세우는 분위기는 급기야 <그림 5>의 2016년본(더페이지 역)처럼 백인 대신 흑인 여성을 넣는 과격적인 시도도 낳았다. 두 여성 모두 독자를 약간 위에서 응시하고 있으며 어깨를 편 당당한 자세에서 기존 번역본 표지의 다소곳한 여성상과 차별화된다.

이같은 경향은 2016~2019년에 두드러지다가 이후 수그러들었는데(그림 6) 이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웹상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다 2019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다(그림 7).

<그림 6> 페미니즘 요소가 반영된 표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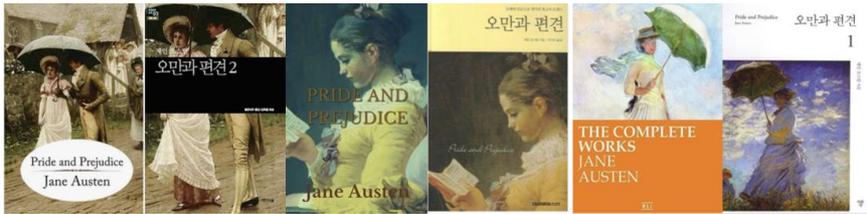
<그림 7>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구글 트렌드 분석



이 현상이 ST의 영향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판본의 원서 표지를 아마존과 구글을 통해 검색했다. 어떤 판본을 ST로 사용했는지 밝힌 번역서가 별로 없어 동일 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ST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정했다. 총 96종 중 10.4%에 해당하는 10종이 ST 표지를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한 이미지로 차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그런데 2010년대 후반의 페미니즘 요소가 두

드러지는 표지들은 ST와 무관하게 국내 번역서에만 등장한 것이 특징이었다. 초판본 공작새 삽화와 오스틴의 초상화를 사용한 번역본 외에는 모두 고전적이고 정적인 여성을 그린 삽화 혹은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글자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페미니즘적 요소가 강한 표지 이미지는 ST에 상관없이 국내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ST-TT



4.1.2 디지털 세대를 위한 시각적 요소 강화

온라인 시청각 자료에 익숙한 독자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오디오북은 물론, 본문에 원문에는 없는 삽화를 곁들인 웹소설 스타일의 번역본이 등장한 것이 최근 눈에 띄는 특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 따르면 2013년 약 100~2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웹소설 시장이 2020년 기준 6,000억원 규모로 최대 60배 급성장했고 웹소설 이용 경험자의 35%는 매일 웹소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이용자의 60.1%도 향후 ‘취향에 맞는 작품을 발견하는 경우’ 웹소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2020).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같은 추세는 문학번역 및 출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이 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예들로, 아동용이 아님에도 원문에는 없는 삽화나 컬러 이미지가 본문에 들어있는 웹소설 스타일의 번역본들이다. 그 시초라 볼 수 있는 2018년본은 표지에 ‘섬세하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재탄생한 사실주의 로맨스 고전소설의 걸작’이라는 문자 결텍스트도 제공하고 있다. 웹소설 선호장르 1위가 판타지, 2위가 로맨스인 만큼(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로맨스 웹소설을 즐기는 디지털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이미지로 구성된 결텍스트를 활용한 예다. 2020년본은 ST 자체가 영국 삽화가의 컬러 삽화를 포함한

비축약본인데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단숨에 읽는 완역본’을 표방하고 있는 이 번역본은 예스24 회원리뷰 10점 만점(27건)을 기록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21년본 역시 컬러 삽화를 사용했고 2022년본은 삽화는 없는 대신 이례적으로 검은색이 아닌 분홍색 활자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9〉 서민아 역, 박희정 그림 2018; 강수정 역, 엘리스 패들로 그림 2020; 박찬영 역 2021; 이신 역 2022)



4.2 문자로 구성된 결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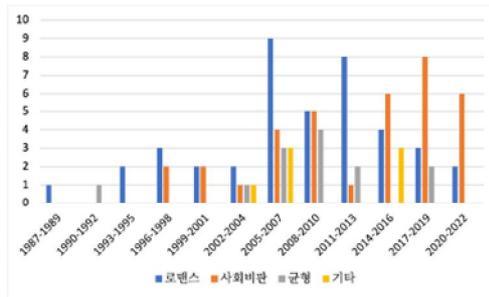
4.2.1 사회비판 대 로맨스

‘오만과 편견’의 저자인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작품은 아직 여성의 권리 의식이 태동기에 불과하던 시절 ‘계몽적 페미니즘(enlightenment feminism)’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irkham 1986).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오만과 편견’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구조 내 여성의 억압을 비판하는 페미니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중산층 여자주인공이 명문가 남자주인공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이르는 로맨스 이야기일 수도 있다. 출판사가 그중 어떤 관점을 택해 독자에게 소구하는지는 표지의 문구와 출판사 서평/책 소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문자로 구성된 결텍스트에서 로맨스 소설로 소개하는지(예: “로맨스 소설의 고전”,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한 스토리”) 아니면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과 페미니즘적 시각을 언급하고 있는지(예: “이러한 사회체도의 불합리성을 ‘오만과 편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 “현대 여성주의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여부를 각각 코딩한 결과, 43.7%(42종)가 로맨스, 36.4%(35종)가 사회 비판, 12.5%(12종)는 양쪽 시각을 모두 제시, 7%(7종)는 번역 방식이나 기획 의도 등 내용 설명과 무관한 기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비

중으로는 로맨스쪽이 더 많아 보이지만 이를 시간순으로 펼쳐놓으면 그림 6의 페미니즘 요소를 반영한 표지의 경우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그림 10).

<그림 10>에서 로맨스 소설로 홍보한 결텍스트의 수는 2005~2007년에 정점을 찍고 2013년까지 주류를 이뤘으나 2014~2016년부터 페미니즘을 토대로 한 사회 비판 관점에 역전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2019년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추정되는 시기로, 사회 비판 관점의 결텍스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사회문화적 상황이 번역 생산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작품에 대한 관점: 사회비판 대 로맨스



4.2.2 우세한 가독성 및 수용성 규범

유구한 번역의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충실성 대 가독성’, ‘충분성 대 수용성’ 논쟁은 책 소개 및 출판사 서평에 잘 드러나 있으며 출판사에 따라서는 이를 표지 문구나 띠지를 이용해 적극 강조하기도 한다. 충실성이나 가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총 96종 중 23종(24%)이 충실성과 가독성에 해당하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실성을 강조한 서평은 17%(4종)에 불과하고 74%(17종)가 가독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8%(2종)는 충실성과 가독성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이에 관한 입장을 표방한 번역서 중에서는 가독성이 주된 번역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역본’을 표방한 번역서는 10.4%(10종)에 불과했다. ‘오만과 편견’은 2003년 영미 문학연구회의 ‘영미 고전 문학 번역 평가 사업’에서 오역, 불충실한 번역, 표절 등으로 혹평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로,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컸을 텐데도 이후

에도 꾸준히 충실성보다 가독성에 치중한 번역 위주로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업적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이상원(2014)이 확인한 국내 출판계의 가독성 및 수용성 규범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세함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의 결텍스트 발췌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충실성 지향

-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만나는 ‘오만과 편견!’ ...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철저한 원문 대조를 통해 원래의 의미와 문체를 생생히 살려 낸 완역본...기존의 번역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역이나 부정확한 번역을 없애고, 원작을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 문체적인 특징이나 기법을 최대한 살렸고 당시 시대상에 맞도록 적절한 표현을 찾아 번역하려고 노력... 무엇보다도 원작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 (민음사 2003)
- 세계문학 ‘축역본의 정본’ 시대를 열다 (살림출판사 2018)
- 국내 최초 1894년 공작새 에디션 초판본 표지디자인 수록 (더스토리 2019)

(2) 가독성 지향

- 쉽게 읽히도록 새롭게 번역한 것이 특징... 문화적 차이까지 번역하기 위해 때로는 삭제하는 기술적 번역도 시도 ... 우리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번역...이를 위해 역자와 소설가가 이중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을 번역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리베르 2006)
- 기존에 나와 있는 ‘오만과 편견’들이 번역투 문장과 오역으로 독자들을 괴롭혀왔던 것에 반해, 이 책은 그러한 문제점을 말끔히 견어내서 현대의 대중 독자 눈높이에 맞게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추수밭 2007)
- 최근 많은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짹짹한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콘텐츠 소비 흐름에 맞춰 5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완역본 ‘오만과 편견’을 2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세심하게 가지치기하는 작업을 거쳤다. ..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점 ... (다상 2017)
- 그간 고전이 지닌 고질적인 난해함과 무거운 느낌을 대폭 개선... 세계 명작도 시집이나 가벼운 에세이처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 (별글 2018)

(3) 충실성과 가독성 균형 추구

- 원전의 맛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 감각에 맞게 손질 (홍신문화사 1998)
- 원문에 충실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옮긴 번역본 (책읽는수요일 2015)
- 번역은 원문에 담긴 내용과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글로 옮기는 과정이어야 한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어 어법에 합당한 번역을 추구 (비꽃 2018)

그러나 ‘원작에 충실한 텍스트, 읽기에 부담 없는 분량’(북스데이 2016)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는 번역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충실성은 출판사가 단순히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홍보 문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4.2.3 번역자 가시성 약화

표지에 ‘000옮김’, ‘000역’ 등으로 표기되는 역자명은 번역자 가시성의 가장 명시적이고 일차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제목 아래 저자명과 역자명을 나란히 표기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번역서 표지에 저자명이 없다면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번역자의 가시성은 저하된 것이고 적어도 그 번역서에서만만큼은 역자의 지위도 낮은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인 96종 중 표지에 역자명이 아예 표기되지 않은 번역본은 10.4%에 해당하는 10종이었고 누가 봐도 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필명을 사용한 경우도 6%(6종)(붉은여우 역 2013; 더페이지 역 2016; overtime번역팀 2014; 더트랜스 역 2017; 뉴트랜슬레이션 역 2017/2019)로, 번역자의 가시성이 훼손된 번역서가 총 16.7%였다. 특히 종이책 및 전자책 버전의 경우 표지에는 없더라도 속지에는 저자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처음부터 전자책으로만 발행된 경우 표지에 역자명이 아예 없거나 ‘더트랜스’처럼 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한 번역본이 71%(5종)가 넘었다. 이는 기존 번역서를 약간 수정하거나 편집해 출판하던 관행에 따라 역자명 대신 사용하던 ‘편집부’란 용어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고, 번역자가 온라인 독자들의 비판이 두려워 실명을 밝히기 꺼렸던 것일 수도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결과적으로 번역자 가시성은 낮아지고 번역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자의 지위도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역자 소개는 저자 소개 바로 아래 제공되는 결텍스트로, 절반이 조금 넘는 67.7%에서만 역자 소개를 게시하고 있어 역시 낮은 가시성을 보였다. 특히 2010년대부터 필명을 사용하거나 역자명과 역자 소개가 아예 없이 가볍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중심의 번역본과 전자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오만과 편견’처럼 판본이 다양하고 저작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워 손쉽게 편집이 가능한 고전소설의 경우 결텍스트의 번역자 가시성은 상업적 이유에서도 계속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2.4 입시 위주 교육 풍토의 반영

그 밖에도 결텍스트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특징 중 하나로 입시위주 교육 풍토를 들 수 있다. 19.7%(19종)이 작품성이나 재미보다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학습서로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중 자체는 크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 (홍신문화사 1998)
- 서울대 등 논술문제를 고전에서 많이 출제한다고 발표... 세계문학을 읽으면 대학이 보입니다. 논술이 잡힙니다! (교육출판공사 2005)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선정한 권장도서 중 논술문제에 출제될 만한 100권의 도서를 엄선하고 (위너스초이스 2007)
- 서울대 연세대 추천 도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 고전명작 (일송북 2010)
- 미국 대학위원회 SAT 추천도서, 미국 하버드대생이 가장 많이 읽는 책 20선 (문예출판사 2010)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에서는 탄탄한 ‘독서력’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고전을 통한 독서 훈련만큼 좋은 것이 없다 (지식의숲 2013)

이 같은 경향은 표지에 ‘SAT 주관사인 미국대학위원회 권장도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논술대비 세계문학,’ ‘논술대비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명작’ 같은 홍보 문구로 더욱 강조되어 등장한다. 일반적인 ‘청소년 권장도서’와 ‘SAT 주관사인 미국대학위원회 권장도서’는 대상독자층이 같더라도 입시대비

용 참고서나 학습서라는 함축된 전제가 있고 따라서 독서의 목적이 다르다. 더구나 이 같은 현상이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 세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한국 특유의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번역 생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만과 편견’의 여러 번역본 온라인 결텍스트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2019년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이 결텍스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이전 기간에 페미니즘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지에서 기존의 수동적이고 고착된 로맨스 여주인공 이미지가 아닌 자유롭고 당당하며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문자로 구성된 결텍스트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새로운 소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 본문의 텍스트 번역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다.

둘째, 원문에 충실한 완역본보다 가독성을 중시하는 편역본이 꾸준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요즘의 콘텐츠 소비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며 특히 온라인 시청각 자료에 익숙한 새로운 웹세대 독자층의 부상과 맞물려 웹소설 스타일의 번역서나 어린이용 그림책을 방불케 하는 풍부한 삽화를 곁들인 성인 대상 번역서가 등장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전소설은 어렵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분량을 줄이고 판형을 바꾸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각 자료 활용을 통해 텍스트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것이 번역의 품질과 별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점에서도 수용성 규범은 앞으로도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독성 중심의 편역이 증가하면서 번역자 가시성이 약화하고 있다. 역자후기는커녕 표지에 아예 역자명을 표기하지 않거나(못하거나) 번역자의 실명 대신 정체 모를 필명이나 집단명을 표기한 번역본 혹은 편역본이 전자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어도 ‘오만과 편견’처럼 세계문학전집 같은 시리즈

의 일환으로 출판되는 고전소설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 가시성 약화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입시위주 교육이 번역서 홍보를 위한 결텍스트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현상은 30년이 지나도록 이어져 번역서가 학습서로 기능하고 번역서를 읽는 목적도 대학입시와 결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결텍스트 생산자들이 입시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을 상업적 기회로 간주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작품 이해를 위한 해설이나 퀴즈를 곁들이거나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는 편역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어 가독성/수용성 중심 규범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록 작품 한 편의 결텍스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5년에 걸친 통시적 연구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흐름과 이것이 결텍스트에 미친 영향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나 범위에 제약이 있는 개인 차원의 연구로서 한계는 명확하다. 우선 자료가 워낙 방대해 거시적인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번역서의 결텍스트와 본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미시적인 분석도 병행할 수 있다면 사회문화적 맥락과 번역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번역가 인터뷰나 관련 기사, 독자리뷰 등 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다면 시대별 특징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오만과 편견’이 한국 시장에서 인기 영미고전문학작품으로서 상당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방법론적 한계도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출판된 번역본 정보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코딩하는 수작업이 불가피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도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를 구분하던 기존 종이책 기반의 분류법을 떠나 처음 시도해본 온라인 기반의 결텍스트 분석인 만큼 이 방법론의 타당성 및 보완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존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한계와 논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민서, 김순영 (2019) 「‘걸리버 여행기’의 곁텍스트 연구」, 『번역학연구』 20(1): 267-269.
- 김소정 (2010) 「번역문학과 문화변용 - 이숙우화의 중문 버전에 대한 통시적 로찰」, 『중국어문학』 56: 463-486.
- 김순미 (2013) 「곁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위대한 개츠비』 번역방법 논란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1(3): 5-27.
- 남미현, 백진경 (2004) 「책표지 디자인에서 시각적 요소가 독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문학도서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7(1): 329-338.
- 마승혜, 김순영 (2022) 「번역서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및 평가 -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앞표지와 주제 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번역학연구』 23(3): 183-209.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곁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박영원 옮김 (2006) 『기호학으로 읽는 시각디자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Crow, David (2003) *Visible Signs*, Lausanne: Ava Publishing.)
- 박윤우, 이상빈 (2023) 「페리텍스트(peritext)의 통시적 변화 고찰 - 번역서 『제2의 성』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7(2): 47-69.
- 배상준 (2016) 『영상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선영화 (2017)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번역서 표지 변이 양상 연구」, 『번역학연구』 18(3): 119-148.
- 유재설, 차태호 (2005) 「광고표현에 있어서 기호학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 TV-CF광고를 중심으로」, 『정보디자인학연구』 8: 97-114.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이강선 (2019)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20(2): 57-79.
- 이상빈 (2021)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젠더/여성/페미니즘 관련 번역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변화: 표지 이미지와 책제목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3(1): 125-160.

- 이상빈 (2022) 「우리는 번역학 용어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 ‘결텍스트’, ‘화면해설’, ‘통역사’ 등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4(3): 125-150.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통역과 번역』 6(2): 39-57.
- 이선우 (2023) 『시각문법에 기반한 한국문학작품 영어 번역서 표지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지민, 한륜혜 (2022) 「문학 번역서 결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T&I Review』 12(1): 193-210.
- 임경은, 정진우 (2020) 「전이 학습을 이용한 표지 기반의 국내 도서 장르 분류」,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2): 872-876.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441-464.
- Bachelor, Kathryn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irke, Dorothy and Birte Chris (2013) ‘Paratext and Digitized Narrative: Mapping the Field’, *Narrative* 21(1): 65-87.
- Doherty, Thomas (2014) ‘The Paratext’s the Thing’, *Chronical of Higher Education* 60(17): 13-15.
- Genette, Ge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E. Lewin), Cambridge: Cambridge UP.
- Kirkham, Margaret (1986) *Jane Austen, Feminism and Fiction*, New York: Methuen.
- Kress, Gunter and Theo van Leeuwen (2021)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avenworth, Maria Lindgren (2015) ‘The Paratext of Fan Fiction’, *Narrative* 23(1): 40-60.
- Pesce, Sara and Paolo Noto (2016) *The Politics of Ephemeral Digital Media: Permanence and Obsolescence in Paratexts*, New York: Routledge.

- Stewart, Gavin (2010) 'The Paratexts of Inanimate Alice: Thresholds, Genre Expectations and Status',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16(1): 57-74.
- Smyth, Patrick (2014) 'Ebooks and the Digital Paratext: Emerging Trends in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Media', in Nadine Desrochers and Daniel Apollon (eds) *Examining Paratextu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in Digital Culture*, Hershey: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314-333.
- van Dijk, Yra (2014) 'The Margins of Bookishness: Paratexts in Digital Literature', in Nadine Desrochers and Daniel Apollon (eds) *Examining Paratextu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in Digital Culture*, Hershey: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4-45.

<인터넷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 2022년 출판시장 통계.

http://member.kpa21.or.kr/kpa_bbs/2022%EB%85%84-%EC%B6%9C%ED%8C%90%EC%8B%9C%EC%9E%A5-%ED%86%B5%EA%B3%84-%EB%B3%B4%EA%B3%A0%EC%84%9C/

동아일보 (2023) 「지역 중대형 서점들, 대형온라인서점에 밀려 줄폐업」.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26/120411912/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https://www.kocca.kr/kocca/bbs/view/B0000147/1843408.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Yn=&menuNo=204153&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Setting=&recover=&option1=&option2=&year=&morePage=&qtp=&domainId=&sortCode=&pageIndex=1>

부록

* 분석에 사용한 도서목록

발행일	역자	출판사	발행일	역자	출판사
1988.8	박진석	을유문화사	2010.12	임유란	블루에이지
1992.9	김문하	홍신문화사	2011.3	이성미	반석출판사
1993.6	이수원	일신서적	2012.1	고정아	시공사
1993.10	성기조	신원문화사	2012.4	김지영	브라운힐
1996.6	정은경	청목사	2012.8	역자명 없음	범조사
1997.2	김문하	홍신문화사	2012.9	신현철	현대문화센터
1997.5	신현철	지원북클럽	2012.10	역자명 없음	인콘텐츠
1998.8	김문하	홍신문화사	2012.12	역자명 없음	북로드
1998.11	오화섭	범우사	2013.2	조선정	을유문화사
1999.11	신현철	움직이는책	2013.4	김유미	더클래식
2000.4	홍건식	육문사	2013.4	붉은여우	지식의숲
2000.8	정홍택	소담출판사	2014.6	윤상원	아름다운날
2002.5	성기조	신원문화사	2014.6	이미애	지만지
2002.9	오화섭	범우사	2014.6	김지영	브라운힐
2003.9	윤지관, 전승희	민음사	2014.7	송상소	룽런
2004.1	박현석	동해출판사	2014.8	박연옥	한국헤르만헤세
2004.9	성기조	신원문화사	2014.8	김정아	펭귄클래식코리아
2005.2	김중현	꿈꾸는아이들	2014.9	엄인정	매월당
2005.3	정은경	청목	2014.9	overtime번역팀	다섯손가락
2005.3	임병윤	소담출판사	2014.12	이미선	현대문학
2005.4	김인구	교육출판공사	2015.5	엄자현	심야책방
2005.7	남순우	해원출판사	2015.7	박미경	책읽는수요일
2005.12	윤상원	아름다운날	2016.6	박연옥	한국헤르만헤세
2006.3	신현철	현대문화센터	2016.6	박연옥	한국헤르만헤세
2006.3	박찬영	리베르	2016.10	더페이지	북스데이
2006.4	급실	오늘의책	2017.7	뉴트랜스레이션	다상
2006.5	김옥동	푸른숲주니어	2017.8	더트랜스	바로이북
2006.8	정순원	미래북	2017.9	류경희	문학동네
2006.9	이은채	지경사	2018.2	엄자현	별글
2006.9	김갑수	보성출판사	2018.2	진형준	살림출판사
2006.11	김의경	북스토리	2018.2	김설자	부북스
2006.11	김경희	브라운힐	2018.5	이정아	더디퍼런스
2007.1	원유경	위너스초이스	2018.7	서민아	위즈덤하우스
2007.5	서민아	대교베텔스만	2018.8	하소연	자화상
2007.11	최우호	행복한마음	2018.8	안영준	생각뿔

2007.11	박진석, 송정은	추수밭	2018.10	김옥수	비꽃
2008.2	류경희	고려대출판부	2019.1	뉴트랜스편역	다상
2008.4	김이랑	시간과공간사	2019.7	김유미	더스토리
2008.12	신영란	글로북스	2020.2	김지영	한비미디어
2009.2	서민아	북스캔	2020.3	김지영	브라운힐
2009.6	이미애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4	강수정	아르블
2009.10	김정아	팬진클래식코리아	2020.6	고소현	엔엘비트랜스닷컴
2009.12	김지선	천지인	2021.6	역자명 없음	해성전자북
2009.12	황중호	하서	2021.6	오화섭	종합출판범우
2010.9	김유경	동서문화사	2021.8	류경희	문학동네
2010.10	오영숙	일송북	2021.10	박찬영	리베르
2010.10	원유경	열린책들	2021.10	김영옥	베르단디
2010.12	박용수	문예출판사	2022.3	이신	앤의서재

[Abstract]

**Online Paratexts and Sociocultural Contexts:
A Diachronic Study of Translations of *Pride and Prejudice***

Yonsuk S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ra, the landscape of book purchasing and consumption has shifted significantly from offline to online, and from print to e-books. This diachronic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these sociocultural changes have influenced translation and necessitated changes in the analysis of paratexts of translations. The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Genette's traditional division of paratexts into peritexts and epitexts, proposing a framework that divides online paratexts into images and text. Analyzing the online paratexts of 96 translated texts collected from two major domestic online bookstores,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ciocultural changes on paratexts, identifying key trends and changes in response to these shifts. The findings reveal a marked prominence of feminism in Korea from 2016 to 2019, a diminishing visibility of translators in the e-book-centric market, prevailing norms oriented towards readability and acceptability, and an emphasis on educational purposes reflecting the nation's exam-driven educational climate. The paper concludes by proposing the need for revisiting traditional concepts and methodologies in Translation Studies.

Keywords: online paratexts, diachronic study, feminism, translator's visibility, sociocultural context

주제어: 온라인 결텍스트, 통시적 연구, 페미니즘, 번역자 가시성, 사회문화적 맥락

송연석(<https://orcid.org/0000-0002-3312-8655>)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yonsuk@gmail.com

관심 분야: 번역사회학, 미디어번역, 번역교육

논문 투고: 2023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